

2016년 1차 경찰국어(2016. 3. 20.) 해설

박우찬(윌비스고시학원 국어강사)

□ 총평

이번 경찰국어 시험은 문법 문제가 대체로 평이했던 반면, **한자와 관련된 문제**가 꽤나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한자어의 적절한 사용 문제, 한자성어에 들어갈 한자 문제, 한자성어와 관련된 속담 찾기, 한자와 관련된 차자 표기(국어사) 문제가 독음 없이 그대로 제시되어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경찰국어 시험에서는 한자와 관련된 문제에서 점수 편차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법 12문제는, 차자 표기(국어사) 문제를 제외한다면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5년 3차 시험과 달리 이번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문법에서도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에서는 언어의 성격, 문장의 종류, 높임법, 훈민정음, 겹받침 발음, 띄어쓰기, 외래어표기법, 중의적 문장 문제가 기출문제의 유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두루 풀어본 수험생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음운의 변동, 서술어의 자릿수, 사이시옷 문제는 기존의 문제 유형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서 실수를 한 수험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학은 15년 3차 시험과 달리 **3문제**만 출제되었고, **작문**은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고전문학에서는 출제가 예상되었던 작품인 고대시가 '정읍사'와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제시하여 작품의 기본적 해석과 의미를 물었습니다. 현대문학에서는 소설 1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작문(편지글) 문제도 대부분의 수험생이 잘 풀었을 것입니다.

어휘 4문제는 고유어, 속담과 한자성어, 한자성어, 한자어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와 관련된 3문제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고유어는 기출 문제를 풀어본 학생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은 15년 3차 시험보다 평이했습니다. 따라서 조정 점수도 15년 3차 시험에 비해서 낮지 않을까 합니다.

2016년 1차	문항 수	세부 내용	출제 영역
문법론	7	언어의 성격, 음운변동, 문장의 종류, 서술어의 자릿수, 높임법, 훈민정음, 국어의 역사(차자 표기)	언어, 음운론, 통사론, 한글과 국어사
어문 규범	5	겹받침발음, 사이시옷, 띄어쓰기, 외래어표기법, 중의적 문장	표준발음법, 한글 맞춤법, 외래어표기법, 올바른 문장구성

문학	3	고대가요와 고려속요 작품 해석 및 이해, 현대소설 맥락 파악	고전문문, 현대소설
독해와 작문	1	편지글	글의 종류
어휘	4	고유어 찾기, 속담과 한자성어, 적절한 한자어, 한자성어를 이루는 한자	고유어, 속담, 한자어, 한자성어

□ 앞으로의 경찰국어 공부 방법론

1. 문법론

몇 가지 특징을 제외하면 일반 행정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국어는 문장성분, 문장의 종류,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가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출제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비록 형태론(품사, 활용, 단어형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형태론을 포함한 각 영역을 고루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국어의 역사도 15년 2차와 3차, 16년 1차 시험에 걸쳐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시기의 특징 정도는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2. 어문 규범

일반 행정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국어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세부 규정에서 문제가 밀도 있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평소에 ‘한글 맞춤법’ 전체를 자세하게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문학

고전문학의 경우 각 시기의 대표적 작품을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작품의 기초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현대문학도 중요 작품은 미리 봐두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됩니다.

4. 독해와 어휘

독해가 비중 있게 출제되지 않지만 평소에 독해 문제의 유형을 익혀 두어야 하겠습니다. 어휘는 지난번에 적은 대로 최소한 공무원 국어에서 출제된 고유어, 속담, 한자어, 한자성어를 평소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고유어, 한자성어 문제는 기출 문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5. 맞춤법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경찰국어 기출문제를 자세하게 풀어 보면서 경찰국어 시험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른 직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각 영역의 핵심을 정리한다면

16년 2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국어는 공직생활에서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중요한 소통수단이자 우리의 교양을 길러주는 인문학의 길목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어의 역할에 맞는 경찰국어 시험 경향이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선택과목인 국어를 준비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겪었을 국어 수험생 여러분께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국어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그동안의 경찰직 기출 문제(해설)는 '공무원 국어 연구소' <http://cafe.daum.net/woo-chan>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에서 '우찬국어'를 검색해도 됩니다.

1. 밑줄 친 낱말의 차용 방식이 다른 것은?

(가) 赫居世王 盖郷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삼국유사』 권 제1 중에서-

(나)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삼국유사』 권 제2 「처용가」 중에서-

- | | |
|----------|--------|
| ① ㉠: 弗矩內 | ② ㉡: 入 |
| ③ ㉢: 可 | ④ ㉣: 羅 |

1. 정답 ② [국어의 역사_차자표기] 경찰국어 12월 국어사 특강 완전 적중

<해설> ㉠: 훈차(訓借). 한자의 뜻만을 빌려 어휘 형태소를 표기하였다.

㉡㉢㉣ 음차(音借). 한자의 음만을 빌려 고유명사나 문법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를 표기하였다.

[해석] (가) 赫居世王(혁거세왕) 盖郷言也(개향언야) 或作(혹작)㉠弗矩內王(불구내왕) 言光明理世也(언광명이세야).

➡ 혁거세(세상을 밝게 다스리는: 뜻을 빌린 표현)왕은 신라의 말이다. 또는 불구내(밝은 누리의 왕: 음을 빌린 표현)왕이라고 표기하는데,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나) 東京明期月良	시불 불기 드래
夜入伊遊行如可	밤 드리 노니다가
入良沙寢矣見昆	드러샤 자리 보곤
脚烏伊四是良羅	가르리(가랑이) 네히어라.

➡ 入 들다<입>, 한자의 뜻을 빌려 어근을 표기하였다. 夜(밤)入(들)伊(이)
可 옳을<가>, 한자의 음을 빌려 연결 어미를 표기하였다. 遊(놀)行(녀)如(다)可(가)
羅 비단<라>, 한자의 음을 빌려 종결 어미를 표기하였다. 是(이)良(러)羅(라)

[참고] 이 문제는 국가직 7급 13년, 국회직 8급 10년, 지방직 7급 08년에 출제된 차자 표기 관련 문제를 풀어 보았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2010년도 국회직 8급 문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처용가(處容歌)’의 일부이다. 이에 사용된 차자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하였다.
나. 초성자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ㅅ, ㅇ’이다.
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조음 기관을 상형하여 창제하였다.
라. 중성자는 따로 창제하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하게 하였다.
마. ‘ㄱ’, ‘ㄷ’, ‘ㅁ’처럼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을 합용병서라고 한다.

- ① 가,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라 ④ 나, 다, 마

2. 정답 ④ [한글] 경찰국어 기출 문풀, 진도별·동형 문풀, 마무리OX 완전 적중

〈해설〉 나. 'ㄱ, ㄴ, ㄹ, ㅅ, ㅇ' 다섯 개다.

다.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상형하여 창제하였다.

마.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을 각자병서라고 한다.

3. 다음 중 음운 변동과 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체: 부엌 [부억]
- ② 축약: 붙여 [부처]
- ③ 탈락: 담가도 [담가도]
- ④ 첨가: 피어도 [피여도]

3. 정답 ② [음운론] 경찰국어 진도별·동형 문풀, 마무리OX 완전 적중

〈해설〉 ‘붙여’[부터→부처]는 구개음화 현상에 속한다. 구개음화는 음운동화의 하나이며, 음운동화는 교체 현상에 속한다. ‘표준 발음법’에 따라 [부처]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음운 축약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받침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으로 발음된다. 교체 현상이다.
- ③ ‘담그다’의 어간 ‘담그-’에 어미 ‘-아’가 와서, 어간 끝음절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 ④ ‘피어’는 [피어/피여]로 발음할 수 있다. [피여]로 발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ㅣ’모음 순행 동화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ㅣ’모음이 첨가되어 이중모음 ‘ㅐ’가 되었기 때문에 첨가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교체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동화	구개음화
		자음동화
		모음동화
		모음조화
	이화	

4. 다음 중 언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의 자의성: 언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 ②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나 형태가 변화하기도 한다.
- ③ 언어의 사회성: 언어 내용과 형식이 일단 한 사회 속에서 약속으로 굳어지면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④ 언어의 분절성: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혹은 단위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4. 정답 ④ [언어의 성격]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마무리OX 완전 적중

<해설> ④는 언어의 규칙성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 해양경찰 15년 기출 문제에 언어의 규칙성이 이미 출제된 바 있다.

5. 다음은 한자 성어이다. () 안에 들어갈 한자가 모두 적절한 것은?

累卵之()

□()腹劍

鯨戰()死

南()一夢

- ① 稅, 蜜, 蝦, 稼
② 勢, 密, 瑕, 柯
③ 勢, 蜜, 蝦, 柯
④ 稅, 密, 瑕, 稼

5. 정답 ③ [한자성어]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마무리 OX 적중

〈해설〉 • 累卵之勢(누란지세):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口蜜腹劍(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 鯨戰蝦死(경전하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뜻으로, 강한 자끼리 서로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南柯一夢(남가일몽):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참고] 鯨戰蝦死(경전하사)는 경찰국어에서 출제된 바 있다.

6.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맑다 [말따] ② 흉과 [흑파]
- ③ 넓다 [널따] ④ 밟다 [밥따]

6. 정답 ① [표준발음법]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마무리OX 완전 적중

〈해설〉 ‘맏다’는 [막따]가 된다.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원칙에 따라 [ㄱ]으로 발음된다.

7. 다음 중 문장의 의미가 가장 명확한 것은?

- ①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② 오늘도 나는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 ③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 ④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신문을 더 좋아한다.

7. 정답 ④ [올바른 문장 구성]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마무리OX 완전 적중
 <해설> ④는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만약 이 문장이 ‘아버지는 나보다 신문을 더 좋아한다.’로 되어 있었다면 중의적 문장이다.
- ① ‘보고 싶은’의 주체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다.
 - ② ‘과’를 동반 부사격 조사로 보아 ‘반장과 함께’로 볼 수도 있고, ‘과’를 접속 조사로 보아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닌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 ③ 관형어 ‘수많은’이 ‘사람들’을 수식할 수도 있고, ‘노력’을 수식할 수도 있다.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복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관찬은 기분을 구석으로 떠밀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중략>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우리 서클 아이들이 봉산 탈춤 발표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학교 축제의 하나예요.”
 “그런데?”
 민 노인의 물음에는,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복장단을 맡아 주셨으면 하구요.”
 “뭐라구? 그건 나와 번지수가 달라. 해 본 적도 없구.”
 “한두 번만 맞춰 보시면 될 건데요.”
 “연습까지 하고? 아서라. 더구나 닌 애비가 알면 큰일난다.”
 “염려 마세요. 저하고 비밀만 지키면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다 말해 났구, 지도 교수의 허락도 받았다고요.”
 “임마, 그건 너희들끼리 해도 되잖아. 나까지 끌어내지 않아도.”
 “누가 그걸 모르냐요. 자리를 더 좀 빛내 보자 이겁니다.”
 “나는 무대나 안방에만 앉아 봤지, 넓은 마당에서는 복을 쳐 본 경험이 없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을 안 꺼냈다면 몰라도, 이제 와서 제 체면도 좀 봐 주셔야죠.”
 “이 녀석들 보게. 애비는 애비대로 내 복 때문에 제 체면이 깎인다는 판에, 자식은 또 복으로 체면을 세워 달라니 무슨 조हत속인지 어지럽다.”
 “아버지와 저와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 말도 못 알아듣겠다.”
 “설명하자면 길구요. 이번 일은 꼭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뭇하지만, 제딴에는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얼씨구. 이 녀석 봐라.”

- ① 손자 ‘성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 ② ‘민 노인’의 아들은 ‘민 노인’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한다.
- ③ ‘민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다.
- ④ 손자 ‘성규’는 일이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을 제시하며 ‘민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8. 정답 ④ [문학_맥락 파악] 경찰국어 진도별·동형 문풀 유형 적중

<해설> 손자 '성규'는 이미 말을 꺼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깎이면 안 된다는 점, '민 노인'에게도 신바람을 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출처: 최일남, 「흐르는 북」

9. 다음 중 적절한 한자만 쓰인 것은?

① 이 무기는 辭屢 거리가 너무 짧다. 신무기 개발과 補給이 時急하다.

② 사건을 造作한 것이 경찰에 의해 發覺되었다. 이는 권력을 지나치게 濫用한 결과다.

③ 조선시대 의식주에 관한 資料가 필요하면 민속학 事典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라. 그리고 고적을 答辭해라.

④ 이번 事件에 대해 한국 정부는 有感의 뜻을 표했다. 이는 한국인의 소행으로 斷定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9. 정답 ② [한자어] 경찰국어 모의고사 일부 적중

<해설> ② 造作(조작), 發覺(발각), 濫用(남용)

① ➡ 射程(사정), 補給(보급), 時急(시급)

③ 資料(자료), 事典(사전), ➡ 踏査(답사)

④ 事件(사건), ➡ 遺憾(유감), 斷定(단정)

[참고] 우찬국어 동형모의고사 제5회 10번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지에 미리 踏査를 다녀왔다.

10.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가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zigzag 지그재그	㉡ vision 비전
㉢ leadership 리더쉽	㉣ yellow 옐로

① ㉠, ㉡

② ㉠, ㉣

③ ㉢, ㉣

④ ㉢, ㉡

10. 정답 ② [외래어표기법]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마무리OX 완전 적중

<해설> ㉡ 비전, ㉣ 리더쉽

11. 이 글을 쓸 때 세운 글의 계획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방송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2학년 박○○입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바람이 자취를 감추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봄기운을 느끼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방송반 동아리 모임에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 선생님과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모임에서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 궁금했던 것을 여쭙 수 있어서 무척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모임에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일이나 진로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방송 작가나 방송 제작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직업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실은 대학 진학도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 여러 학교 일로 바쁘시겠지만 진로나 진학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신 : 학기 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답장은 편하신 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계절 변화를 환기한 후 안부를 묻는다.
- ② 선생님께 편지의 용건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 ③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므로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한다.
- ④ 선생님께 지난 과거 일을 말씀드리며 실수한 일에 용서를 구한다.

11. 정답 ④ [글쓰기] 경찰국어 동일 유형 적중

<해설> 선생님께 진로나 진학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기 위해 쓴 편지글이다. 지난 실수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영과 나는 소꿉친구다. 나는 수영을 언제부터가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 수영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 그래서 내일은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고백할 생각이다.

- ① 가멸다 ② 슬겁다
③ 몽따다 ④ 곰삭다

12. 정답 ③ [고유어] 경찰국어 모의고사 적중

<해설> 몽따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하다.

예 그는 사실을 알면서도 몽따고 되물었다.

- ① 가멸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다.
② 슬겁다: 「1」 집이나 세간 따위가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이 꽤 너르다.
「2」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

④ **곰삭다**: [1] 「1」 옷 따위가 오래되어서 울이 삭고 질이 약해지다.

「2」 젖갈 따위가 오래되어서 폭 삭다.

「3」 풀, 나뭇가지 따위가 썩거나 오래되어 푸슬푸슬해지다.

[2] 【(…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두 사람의 사이가 스스럼없이 가까워지다.

[참고] 우찬국어 제8회 진도별 모의고사 10번, 우찬국어 제3권 독해와 어휘, 국가직 9급 14년, 지방직 7급 13년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쓰인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갔다.

①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②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는 높임법이다.

③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종결 어미에 의해 청자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의 정도가 표현된다.

④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 높임을 표현한다. ‘계시다’, ‘잡수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13. 정답 ② **【높임법】**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마무리OX 완전 적중

<해설> 밑줄 친 부분에는 객체높임법이 사용되었다. 객체 높임법은 행위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객체는 문장 내에서 목적어 또는 부사어로 실현된다.

※ [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둘하 노피곰 도드샤
 어긁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긁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겨재 녀려신고요
 어긁야 준 디를 드디올세라
 어긁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긁야 내 가논 디 ㉡점그를세라
 어긁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나)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믹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해금을 허거를 ㉣드로라

14. 위 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현실의 삶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작품으로서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 ④ (가)는 특정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화된 정서를 드러내고 (나)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14. 정답 ④ **[고전시가]**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완전 적중

<해설> (가)에서 감정 이입의 대상물을 찾을 수 없고, (나)에서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찾을 수 없다.

15.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머리곰 : ‘멀리멀리’의 의미로서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점그를세라 : ‘저물까 두렵다’의 의미로서 야간에 남편이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가 나타난다.
- ③ ㉢ 먹리도 괴리도 없이 :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의 의미로서 고독한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드로라 : ‘듣는가’의 의미로서 비록 홀로 있지만 사랑하는 임과 함께 신비로운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15. 정답 ④ **[고전시가]**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완전 적중

<해설> ‘드로라’는 일반적으로 ‘듣는다’로 해석한다. 외딴 부엌(에정지)을 가다가 해금 켜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석]

(가) 「정읍사」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멀리멀리 비취 주소서.

저자(시장)에 가셨는지요.

진 데(질척한 곳, 어두운 곳 → 험한 곳) 디디실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이든 (집 내려) 놓으세요.

내(임) 가는 데 저물까 (두렵습니다).

(나) 「청산별곡」

어디라 더디던 돌코,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리라 마치던 돌코.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먹리도 괴리도 업시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마자셔 우니노라.

맞아서 우는구나.

살어리 살어리랏다.	살리라 살겠노라
바르래 살어리랏다.	바다에 살겠노라.
늑문자기 구조개랑 먹고,	나문재 ¹⁾ 와 굴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바다에 살겠노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가다가 가다가 듣는다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외딴 부엌 가다가 듣는다.
사스미 짬뽕에 올라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奚琴(히금)을 허거를 드로라.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1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녀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녀뿐이다.
- ②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그리고 궁금한 것은 스스로 책이나 컴퓨터로 찾아보아라.
- ③ 우리는 어릴 망정 어떤 고난도 참아 냈다. 지금까지 애쓴 만큼 강팀들도 이길 수 있다.
- ④ 철수는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사장님에게 혼나기는커녕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

16. 정답 ③ **[띄어쓰기]**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완전 적중

<해설> ③ ➡ 어릴망정. 어간과 어미는 한 단어를 이루기 때문에 붙여 쓴다. 어리-ㄹ망정

• ‘-을망정/ㄹ망정’은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앞 절의 사실은 가상의 것일 수도 있다.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 혹은 ‘비록 그러하다 하여도 그러나’에 가까운 뜻을 나타낸다.

[참고] 법원직 2010년 문제에서 ‘어릴망정’에 관한 띄어쓰기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17. 다음 중 문장의 구성이 다른 것은?

- ① 꽃이 피는 봄이 되었다.
- ② 재물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③ 누나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렸다.
- ④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건강이 안 좋다.

17. 정답 ④ **[문장의 종류]**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마무리OX 완전 적중

<해설> ④는 어미 ‘-는데도’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①②③은 각각 관형절(관형어), 명사절(목적어), 명사절(목적어)을 안은 문장이다.

[참고] 서울시 7급 13년 문제를 변형하였다.

1) 바다에서 나는 해초의 일종.

다음 중 문장의 구성이 다른 하나는? [서울시 7급 13년]

- ① 철수가 합격했음을 알려야지.
- ②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 ③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④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이 시작되었다.
- ⑤ 열심히 했는데도 학점이 잘 안 나온다.

18. 다음 문장 중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 ① 어제 만났던 그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다.
- ② 군대에 가는 민수는 후배들에게 책을 주었다.
- ③ 배가 많이 고팠던 철수는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 ④ 삶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18. 정답 ② **[서술어의 자릿수]**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마무리OX 완전 적중
 <해설> 동사 '주다'는 주어, 필수부사어, 목적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군대에 가는)[생략 가능] 민수는[주어] 후배들에게[필수부사어] 책을[목적어] 주었다.

19. 다음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사이시옷 표기가 된 합성어의 예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 | | ㉠ | ㉡ |
|---|-----|-----|
| ① | 귤병 | 귤밥 |
| ② | 넋가 | 뱃길 |
| ③ | 자릿세 | 전셋집 |
| ④ | 아랫집 | 아랫방 |

19. 정답 ④ **[사이시옷 표기]**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마무리OX 완전 적중

<해설> '아랫집'은 고유어 '아래'와 고유어 '집'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아랫방'은 고유어 '아래'와 한자어 '방(房)'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20. 다음 ㉠ ~ ㉣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識字憂患
㉡ 角者無齒
㉢ 螳螂拒轍
㉣ 得隴望蜀

- ① ㉠ 아는 것이 병이다.
② ㉡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③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④ ㉣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20. 정답 ④ **[속담과 한자성어]** 경찰국어 기출 문풀, 모의 문풀, 마무리OX 적중

<해설> ㉣ 得隴望蜀(득룡망촉)에는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와 같은 속담이 와야 한다.

· 得隴望蜀(득룡망촉): 농(隴)을 얻고서 촉(蜀)까지 취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識字憂患(식자우환):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 角者無齒(각자무치):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 螳螂拒轍(당랑거철):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고] 螳螂拒轍(당랑거철): 14년 1차 경찰기출, 得隴望蜀(득룡망촉): 제1회 실전모의고사

6. 한자성어와 속담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得隴望蜀 -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